

---

# 2020년 제2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6. 19. ~ 6. 2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6. 20.	시청률	0.051

### 【총 평】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주민만족도라는 고효율 결과물을 도출해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소개해 기획의도를 극대화했다. 첫 사례인 외국인 통역도우미 운영은 정읍시의 수범사례로 해외경험과 외국어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제도로써 위민행정의 본보기였다. 특히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이들의 민원처리를 돕고 생활불편사항까지 챙기는 모습이 깊은 감명을 주었다.

두번째 이천시 사례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편의와 안전 그리고 인근상가 접근성까지 높인 일석삼조의 정책적 효과를 이끈 탁월한 시책이었다.

정읍시와 이천시가 펼친 선진행정사례는 저비용 고효율을 이끌어낸 정책의 본보기로 정책 알림이 역할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로의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자치단체의 정책 시행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도 긍정적이었다. 또, 정책의 배경, 필요성, 추진 경위, 시행후 정책적 효과, 주민 만족도 등을 순차적으로 보여준 구성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전북 정읍시에서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해 도입한 글로벌 통역관,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에서 보행자들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늘리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전북 정읍시 ‘글로벌통역관’ 시스템은 지자체가 관행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케이스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월 기준 252만여 명으로 다문화사회에 다다랐다. 이주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곤혹을 겪고 있는데, 전북 정읍시는 지난 3월부터 글로벌 통역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까지 확산시켜나가는 모습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천시의 ‘대각선횡단보도’는 서울시의 경우를 언급하고 대도시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중소도시인 이천시의 사례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강조한 효과적인 구성이었다. ‘보행자 친화 교통시설’임에도 지방은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사례였고, 결국 ‘삶의 질, 형평성’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시청자 관심을 끌었다. 이천시는 지난해까지 7곳을 설치했고 현재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최대한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내 457개 신호교차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활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여서 우리동네 개선문의 취지에 더 적합한 소재였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6. 20.	시청률	0.000

### 【총 평】

작은 담배 불씨나 작은 실수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 부실 공사나 다툼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제도 및 안전 수칙을 다룬 '화재 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해 방송하였다.

'밥법 드라마'에서 소개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법률다락방'에서 사연 되짚기로 "화재 배상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주제와 관련한 사례 선정이 생활 밀착형이라 매우 돋보이고, 시청자들에게 리얼함과 손에 잡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 【구성 및 내용】

화재 사건을 매체에서 다룰 때는 관리 감독 부실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건물주와 피의자 입장에서 법적인 책임을 고루 다룬 점이 좋았다. 뿐만 아니라 화재 보험의 종류와 가입의 필요성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어 소개한 점, 또 화재 예방법까지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룬 점이 좋았다.

특히, 프로그램의 성격을 사건에 잘 녹여내어 처벌죄와 손해배상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어 색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점이 일단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안전불감증 차원에서만 화재 사건을 인지했지 구체적인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생각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밥법 드라마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로 담배꽁초 실화 사건 재연하고 법적인 책임여부를 따져보았다. 특히,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를 다루어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서는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어 그 책임 여부를 따져본 점이 꽤 흥미로웠다.

실화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다루어 눈길을 끌었다. 실화 책임에 대한 법률을 언급하며 최대한 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행자가 불이 나면 일단 자신의 옷이라도 벗어서 불을 끄려는 노력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설명해 직관적인 이해를 도왔다.

법률다락방에서는 화재 배상 책임과 처벌과 배상액, 손해배상액 경감절차 등을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다루고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화재 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주어 꽤 좋은 정보가 되었다. 이어 재난 배상 책임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소개가 되어 더 인상적이었다.

방화죄와 실화죄에 대해 따로 다루어 본 것도 꽤 흥미로웠고, 본인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도 엄연히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 화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지 충분히 인지시켰다. 밥상머리차트는 화재 손해배상 사건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루었는데, 실화 처벌 문제와, 임대인의 책임, 실화자의 책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6. 20.	시청률	0.157

### 【총 평】

‘변화를 위해 쉽 없이 달려온 울산’과 ‘자연과 어우르며 한반도 아침을 깨우는 울주’의 풍경을 담은 “울주의 아침이 시작되면”을 방송했다. 동해 바다의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주군 일출의 장관과 시원스러운 바다 풍경이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과 삼동면에서 보여준 ‘울주’의 풍경 소리와 서민들의 다양한 삶은 시청자에게 아름다움과 먹먹함 그리고 설렘을 동시에 선사하였다.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썰 틈 없이 일하는 고정식 특수망 바다 어부 부부의 새벽 송어 잡이와 낚 발농사, 매일 아침 10시 마다 벌어지는 목장주의 소 산책물이 등을 들려주었다.

울주군 삼동면에서 보여준 이야기는 계절마다 보여주는 자연의 색과 정갈한 고택에서 뿜어내는 천연염색, 그리고 천연염색 물 끓는 소리와 염색 들이는 소리, 천연염색이 주는 인생철학, 천연염색이 주는 넉넉함과 정성이었다. 일곱 개 봉우리를 품고 있는 울주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 【구성 및 내용】

울주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다 풍경만 떠올려지는데 울주군에 숨겨진 다른 부분들을 잘 꼬집어내어 상당히 인상적인 방송을 만들어냈다. 바다 풍경으로 시작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소 목장을 소개하고 천연 염색가를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장면도 참신했다. 한쪽의 수채화같은 아름다운 풍경의 울산 울주 앞바다가 들려주는 ‘어부와 농부로서 살아가는 삶’, 목장의 소들과 동고동락하는 목장주, 천연염색가의 아름다운 자연의 색 이야기 등 정겨운 삶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

울주 앞바다에서 파도치는 모습과 일출 풍경으로 강렬하게 시작해서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시켰고, 첫 번째 주인공인 어부의 새벽 작업을 아주 역동적으로 잡아냈다. 직접 잡은 물고기와 채취한 부지깽이 나물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과 어부와 농부의 삶을 한꺼번에 누리는 인생에 대해 대화를 나눈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이어 소 목장으로 이동해 목장주를 통해 울주 소의 유래와 가치에 대해 얘기했고, 주말 농장을 이용하면서 잡고 있던 소줄이 지금의 목장이 되어버렸다는 고백도 상당히 기억에 남았다.

세 번째 주인공으로 천연 염색가가 소개됐는데 직업에 걸맞게 직접 풀과 나무를 채취해서 천연염색을 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꽤 흥미롭게 시청했다. ‘자연이 주는 그대로 색을 받아낸다’는 염색가의 메시지가 인생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기억에 남았다.

일출 풍경이나 소떼를 방목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성적으로 연출되어 기억에 남았다. 천연 염색가가 등장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집안 외부부터 내부까지의 모든 화면 곳곳에 색감으로 가득했고 특히 염색한 천을 말리는 모습도 상당히 운치 있게 잘 잡혔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DMZ 공존 3부 '길, 멈추지 말고 평화로'		
방송일자	2020. 6. 21.	시청률	0.002

## 【총 평】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마련한 UHD 다큐멘터리 'DMZ 공존' 마지막 편 3부 '길, 멈추지 말고 평화로'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남북이 공존을 통해 평화로의 길로 멈추지 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기획성과 시의성이 탁월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의미가 더욱 빛을 발했다.

'길, 멈추지 말고 평화로'는 DMZ 공간 철원 주민과 두루미의 공존을 통해 남북관계의 상생을 조명하고 20대 등산객의 지리산 등정, 50대 등산객의 백두대간 허리 향로봉 등정과 정의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는 행로"를 통해 남북관계의 미래 과제 해결방안을 시사한 구성이 돋보였다. 탈북 신부와 철원에서 군복무를 한 남편의 '남남북녀' 가정의 단란한 모습을 통해 남북화해와 행복의 비전을 마무리로 보여준 부분도 가슴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 【구성 및 내용】

전쟁과 분단, DMZ를 잉태한 것은 비극이지만 시간이 흐른 DMZ는 다양한 생명을 품은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다큐멘터리 'DMZ 공존' 1부와 2부에서는 전쟁이 남긴 아픈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에 대한 갈망을 투영해냄으로써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즉 남북 간 '공존'의 조건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출했다.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강화도와 연평도 그리고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에 대한 갈망과 공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구성은 느낌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DMZ 공존의 3부 '길, 멈추지 말고 평화로'는 평화누리길, 강화도, 연평도, 서울 도봉구 등 남북정상과의 만남 이후 한결 완화된 남북갈등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풀린 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종주를 위한 젊은 산악인부터 기성 산악인들의 소회를 들려주었다.

이 밖에 철원의 두루미라는 객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다시 남과 북의 공존으로 이어간 것은 좋은 스토리텔링 방식이었다. 또, 연평도에서는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는 어민의 바람을 또한 백두대간을 오르는 산악인을 통해선 분단을 넘어서 종주하는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왜 평화의 노력이 지속되어야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잘 표현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해서 가정을 꾸린 장점심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남남북녀의 결합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특집 전체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끝맺음이 되었다.

프로그램	월 좀 아는 의사 K닥터		
방송일자	2020. 6. 21.	시청률	0.001

### 【총 평】

“잇몸 질환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주제로 이와 잇몸 건강 지식, 임플란트, 치과 관련 질병 등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전신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매우 밀접함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주었다. 뇌를 파괴하여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 당뇨병 등의 병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10년 전 연구 논문을 통해 치아 한 개의 가치를 통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후 감염을 일으키는 충치세균과 잇몸 질환의 중요성, 치주 질환이 불러일으키는 10 여개의 일반질환 위험성, 치주 질환 예방의 중요성, 잇몸질환 발생원인, 개인에 맞는 치약 활용법, 치아 착색 예방, 임플란트 필요성과 비용, 의료정책으로 인한 임플란트 비용 혜택, 치주 질환 자가 진단법 등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압축하여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의학 프로그램의 주제 중에서 중대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치과 정보에 관해 다루었는데 그 중요성이 무척이나 크고 보험 관련 정보도 유용해서 인상적이었다. 다른 중대 질환에 비해 치과 질환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의 폭이 컸고 다른 질환보다 상대적으로 병원을 바로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강의가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잇몸질환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내용으로 치주질환과 건강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치약 선택법과 피할 음식 등을 소개했다. 또, 임플란트 시술법과 비용, 의료보험 정보를 다루었고 좋은 치과 고르는 팁 등을 소개했다.

특히 초반에 치주질환의 위험성을 전신 건강과 연관지어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호기심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에게 알맞은 치약 선택 팁이나 피할 음식에 관한 정보나 치주질환 자가진단법 등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 그 부분에서는 패널들과 시청자들까지 함께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가 되어 참여도를 높이고 더욱 방송에 대한 몰입력을 높였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전신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매우 밀접함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주었다. 뇌를 파괴하여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 당뇨병 등의 병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치약을 치아나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정보제공을 통해 그동안 시중에 수도 없이 많은 치약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주었다. 임플란트의 개선된 시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리 시공하는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었다. 또, 의료보험체계를 언급하면서 각종 혜택과 구체적인 시술 비용을 수치상으로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6. 24.	시청률	0.000

### 【총 평】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টে을 방송해 정책 알림이, 정보제공, 솔루션 등을 제시한 기획이 탁월했다. ‘광주형 일자리’ 본격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을 전국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한다에 따른 것으로 ‘시의성’과 ‘이슈화’도 돋보였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성공요건과 향후 과제 진단을 통해 솔루션을 제시한 부분도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효과도 기대된다.

<S&News>에서 다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문을 여는 행사로 이를 대대적으로 알림으로써 ‘정보제공’과 ‘시의성’이 뛰어났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온라인 이벤트를 홈쇼핑 스타일로 방송해 흡인력과 관심을 높인 점도 신선했다.

### 【구성 및 내용】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형지역일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기대되는 파급효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 것인지 등 광범위한 내용을 골자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도왔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고 또한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본 것은 시의적으로 의미 있었고, 되도록 내용을 골자 위주로 단순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한 구성도 좋았다.

‘상생형일자리’가 단순하게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에 변화를 일으켜서 자동차산업의 경우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의 파급효과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독일 ‘폭스바겐’이 동독 지역에서 시도했던 ‘아우토5000프로젝트’을 소개했는데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았던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었다.

지역일자리를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 등에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진단과 분석으로 대구, 밀양, 구미, 군산, 부산 등 지역일자리 추진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해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수용자 니즈를 살린 구성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5년 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6. 24.	시청률	0.043

## 【총 평】

KTV 대한뉴스 502회는 北 군사행동 보류…정부 "남북 간 합의 지켜야", 6·25전사자 유해 147구 '70년 만의 귀환', 신규 확진 51명…러 선박 항만검역 강화 등 외교, 통일, 안보, 보건복지를 주요뉴스로 전했다. <뉴스링크>는 2018년 도입된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최고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유해 봉환임무를 수행한 소식과 불규칙하고 강한 비 스쿨,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환경운동 #용기내 캠페인을 전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은 北, 군사행동 보류를 논평했다.

## 【구성 및 내용】

### ■ 北 군사행동 보류…정부 "남북 간 합의 지켜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실제 방송 모습과 우리 측 통일부 대변인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게 만들었고 최근 방송 장비 철거와 비난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북한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 6·25전사자 유해 147구 '70년 만의 귀환'

유해 전달식 장면을 시작으로 국방부 차관의 기념사에 이어 유해 발견지와 최종판정 과정, 이송 경로까지 비교적 상세히 소개가 되었고 마무리 부분에는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굳건한 메시지를 전달해 상당히 의미도 있었다.

### ■ 6·25전쟁 70주년…'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

6.25 70주년 행사와 춘천전투, 전쟁 기록 문화재 소식을 엮어서 전달했다. 전쟁의 아픈 기억을 그대로 이어서 전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춘천전투의 공개된 작전 명령서 등은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이 아니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차기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차기 WTO 사무총장 출마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역시 최근에 실검을 장식했던 내용이라 한 번 더 짚어주어 눈길을 끌었다. 당사자의 이력과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 ■ 시그너스 <뉴스링크>

2018년 도입된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최고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유해 봉환임무에 사용된 소식, 불규칙하고 강한 비 스쿨, #용기내 캠페인 등을 전했다.

### ■ 北, 군사행동 보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북한이 최근 이행한 군사행동과 3일 만에 보류한 이유, 이에 따른 해석, 우리도 바뀌어야 할 남북 방향, 국제관계 등을 언급하여 국제사회 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